

李奎報 문학세계에서의 諷刺와 寓意

하 강 진*

차 례

- | | |
|-----------------|-----------------|
| 1. 서 론 | 3. 정치 세계에 대한 寓意 |
| 2. 사회 현상에 대한 諷刺 | 1) 우의의 이론적 성격 |
| 1) 풍자의 이론적 성격 | 2) 간접적인 정치 비판 |
| 2) 직접적인 사회 비판 | 4. 결 론 |

1. 서 론

李奎報와 그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었고, 그 성과도 방대하다. 작가적 성향, 문학작품의 내용, 철학사상적 특징 등이 부각되었고, 특히 李仁老와의 관계에서 대비되는 문학사상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문학사상을 검토하면서 그가 남긴 작품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규보의 시문을 통해 문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천착하고, 그 이론에 근거하여 작품의 내재적 성격을 분석할 때 보다 그의 문학 세계의 특징이나 이인로와의 대비적 성격을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¹⁾

*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1) 필자는 '동명왕편'의 창작동기를 당시의 역사적 정황과 텍스트 읽기를 통하여

이규보의 문학세계의 지배적 성격은 현실주의를 지향한 데 있다.²⁾ 이것은 그가 사회 현실과 접촉하면서 체득한 인식이나 경감을 진솔하게 나타낸 것이고, 그의 개성적인 창작 태도의 지향점을 알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학세계의 특징을 諷刺와 寓意의 창작 이론에 근거하여 작품에 구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특히 이규보의 문학이론이 당시 문학이 안고 있었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인 만큼, 풍자와 우의의 문학이론은 작품 창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문학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의지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그의 문학세계와 연관된 문학이론의 특징을 밝히고, 동시에 용사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풍자나 우의가 개성적인 창작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검토할 것이다.

2. 사회 현상에 대한 諷刺

1) 풍자의 이론적 성격

이규보는 작품 창작에서 진실한 내용의 표현을 강조하면서 風雅의 詩旨를 내세웠다.³⁾ 이는 창작의 내용 구성과 미적 판단의 준거를 『詩經』에 두었음을 뜻한다. 그가 말한 '風雅에서 風은 '위로부터 아래로 부는 변화의 바람'과 '아래에서 위로 부는 자극의 바람'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⁴⁾ '풍'의 작용

재검토하였는데(『동명왕권의 창작 동기 재고』, 『국어국문학』 35,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98), 대외적인 민족 의식이나 국가의식이나 반중화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기보다는 聖賢의 출현을 대내적인 도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품을 지은 것이고, 이럴 경우 신의의 창작태도를 중국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 2) 구체적인 것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李奎翰의 現實志向의 文學世界 研究』(부산대 대학원, 1999) 참고. 아울러 이 논문은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 3) 『論詩』, 『東國李相國集 後集』(이하 『後集』이라 함) 권1<5·a> “攬華遺其實, 所以失詩旨, 邇來作者輩, 不思風雅義”
- 4) 『詩經大序』,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전자의 風化는 在下者에 대한 在上者의

이 풍화이든 풍자이든 그것은 작가의 심각하고도 절실한 정감을 표현하기⁵⁾ 위한 것이다. '雅'는 천하의 일을 말하고 사방의 풍속을 형용한 것으로, 왕정이 흥하고 망한 까닭을 말함으로써 正道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⁶⁾ 이는 풍아의 양식에 현실비판적 성격이 있음을 뜻한다.

시에 대한 이규보의 이러한 시각은 시경의 '風雅'의 通變에 대한 관점과 관련된다. 그는 徐陵에게 화답한 「復答」시의 并序에서

前三篇，皆言花柳之事，頗近浮靡。今於此篇，悉皆削去，亦變風反正之義也。
(「復答」·并序, 『東國李相國集 全集』<이하 『全集』이라 함> 권12<11·a>)

라 하였다. 그는 풍의 양상으로 '變風'과 '正風'을 들었다. 변풍은 풍의 성격이 변했다는 뜻이고, 정풍은 풍의 본래적 성격을 말한다.⁷⁾ 즉 난세·망국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은 시인이 타락한 사회정치적 현실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정감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變風은 온당한 질서 속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된 '下以風刺上'의 형태에 속한다.⁸⁾

이규보는 그가 이전에 지은 세 작품에 대해 모두 꽃과 기생에 관한 것만을 읊은 것이어서 '浮靡'하다고 자평하고는 그것을 '變風'의 성격으로 보았다.⁹⁾ 자신이 인정한 것처럼 '戲作'¹⁰⁾의 시에 해당된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구름 마르고 달 오리는 것"¹¹⁾이라 반성하고는, 변풍과 대비

도덕적 교화를 강조한 것이고, 후자의 風刺는 재상자에 대한 재하자의 비판적 작용을 강조한 것이다.

- 5) 劉 勰, 『文心雕龍』·「風骨」, “風冠其首, 斯乃化感之本源, 志氣之符契也。是以愜悵述情, 必始乎風。”(회동호 역편, 『문심조룡』, 민음사, 1994, p.355.)
- 6) 『詩經大序』, “言天下之事, 形四方之風, 謂之雅。雅者, 正也, 言王政之所由廢興。”
- 7) 『詩經大序』, “至于王道衰, 禮義廢·政教失·國興政·家殊俗, 而變風變雅作矣。”
- 8) 김홍규, 『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p.16.
- 9) 이규보는 다른 곳에서도 시어가 화려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風雅의 뜻을 되살리려는 의도에서 장작한 실례를 들어보이고 있다. (『次韻李平章復和牧丹詩見寄 四首』·并序, 『後集』, 권3<22·b> “此詩賦者多矣, 莫不窮侈極靡。予恐溺於奢淫, 故於第三第四篇, 反之於正, 亦詩人風雅之意也。”)
- 10) 『明日以長篇贈徐學錄陵』·并序, 『全集』, 권12<8·b~9·a> “先生聞之, 命妓出舞, 以贖彼獻花無狀之罪, 且償予之戲作。明日酒醒, 謹成古調長篇, 以謝厚意云。”
- 11) 『次絕句三首韻』·3, 『後集』, 권4<15·b> “詞人比興本於『詩』, 何獨裁雲霓月爲?”

되는 ‘正風’의 창작 정신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시를 다시 지었다.

我寧與世着津迷	義不從人甘寵媚
青蠅一箇忽點玉	心火炎炎難可撲
小窓盡日雨聲寒	幽徑無人苔蘚綠
.....
人間翻覆已了了	口自無言心自笑
書生強狠天公憎	詩語孤高俗子諷

(「復答」, 『全集』 권12<11·a~b>)

이 시는 연석의 공간에서 회작적 태도로 지은 세 편의 작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改作이다. 전편의 배경이 된 거대한 저택은 여기에서는 인적이 드문 후미진 길에 위치한 조그마한 창이 있는 집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전편에서는 충만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감각적 어휘를 많이 선택한 것에 비해, 이 시에서는 차갑고 황량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관념적 어휘를 사용하였다. 또한 화자의 심리 측면에서도 전편에서는 객관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어 만족감이 노출되었으나, 이 시에서는 세계와 갈등하는 화자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즉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절저한 자아 의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끌어오르는 분노, 변덕스러운 세상의 인심 등은 사회 현실을 경험하면서 느낀 구체적인 정감과 인식의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남의 비위에 맞추면서 알랑거리거나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못난 자들이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규보가 새로운 화답시를 지어 變風을 正風으로 되돌리고자 한 뜻은, 세상과 단절된 폐쇄된 공간에서 유희를 즐기고 그것을 작품에 표현한 비사실적 정감에 대한 반성이었던 셈이다. 그가 인식한 風雅는 작가의 진실한 정감에 바탕을 둔 현실 인식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의 대상은 왕패와 도덕, 정교와 풍속, 흥망과 치탄의 근원 등이며,¹²⁾ 이를 통해 풍자는 독자에게 감각적 작용을 주기 위한 양식이라고 요약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풍자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答全履之論文書」, 『全集』 권26(6·a) “要其歸率皆談王霸·論道德·與夫政教·風俗·興亡·理亂之源者也.”

2) 직접적인 사회 비판

여기서 '직접적'이라 함은 비유를 설정하지 않고, 시적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의도를 바로 표현한 특징을 지칭한 것이다. 그의 풍자적 태도는 인간 관계의 다양한 행태, 사회의 기층 민중인 농민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壽夭雖有命	亦在人行爲
毋謂過之小	小積成大疵
……	……
天孽是自召	嗾臍焉可追
作詩諷凡百	佩服無忽遺

(『諷百詩』, 『全集』 권12<17·b~18·a>)

여기서의 '諷'은 '풍자'이나 '풍자'의 의미로, 풍자의 풍자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이규보가 이 시를 지은 것은 당시에 극도로 타락한 사회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이 너무 심하였고,¹³⁾ 세속의 선비들은 실속없이 명예만을 좇는¹⁴⁾ 등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장애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풍자의 의의를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깨우쳐 올바른 것으로 회복시키는 데 두었다.¹⁵⁾ 여기서 올바른 회복은 참다운 인심과 양심을 가진 인격체를 긍정하고, 그러한 인격체를 존중하는 것을 뜻한다.

이규보에게 있어서 이 선악의 문제는 개인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치자 집단에까지 확대되는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是用捨善可爲法，惡可爲誡者。播于諷詠，雖事有不關於上者，其時善惡，皆上化之漸染。故并掇而詠之，豈敢補之風雅？（『開元天寶詠史詩 四十三首』·并序，『全集』 권4<1·a>）

13) 『諷百詩』, 『全集』 권12(17·b~18·a) “人心好反覆，於此可知之。”

14) 『釣名諷』(『全集』 권12<3·a>)과 『忌名說』(『全集』 권21<2·a~b>) 참조.

15) 『答李允甫手書』, 『全集』 권27(10·b) “噫，風雅·楚詞不作，久矣……其所興，足以激時俗反之正者已。”

‘諷詠’은 ‘풍자의 뜻으로 읊조림’을 뜻한다. 그는 당의 현종이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은 선을 선양하지 못하고, 악을 경계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임금이 선악의 분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치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면 결코 사회적 질서가 혼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임금이 사회의 이완과 문란을 유발한 것이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임금에게서 점염된 결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그가 ‘風雅’를 보충하지 않았다고 겸손하게 말한 것은 상하 계층에 걸쳐 묵도하게 되는 선악의 타락상에 대한 경계의 뜻이 있다.

작품 속의 諷刺(satire)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행위와 간사한 신하가 어진 신하를 배척하는 비합리적인 통치 행위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의도를 지칭한 것으로 요약된다.¹⁶⁾ 그가 풍자한 수준은 독자들이 암암리에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고, 그가 공격하는 대상은 독자들도 역시 경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의도한 풍자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미적 표현으로, 권선징악적인 미적 판단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선징악적 태도는 인간윤리의 회복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고, 부정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기도 하다.

이규보의 작품에서 임금이나 최고 통치자에 대한 공격적인 풍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관리의 부당한 통치 행태나 정도를 잃은 사회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로 표현하였다. 그가 詩旨로 내세운 풍자의 의도와 호방한 풍격은 그의 인생 태도의 미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선의 문제보다도 악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였는데, 이것은 인심이 타락한 현실에 대한 정감이 자연스럽게 유출되어 작품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풍자의 바탕이 된 선악의 미적 판단에서 미적 가치의 척도는 바로 진실한 인생에 토대한 정감적인 융합과 화해로운 인간 관계를 진지하게 추구한¹⁷⁾ 결과였다.

그의 풍자적 태도는 기층 민중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 시에서 극대화된다.

16) 이러한 관점에서 지어진 글이 「屈原不宜死論」(『全集』 권22)이다. 이규보는 이 글의 창작 의도를 “乃所以雪原之冤，而益貶其君之惡，庶以諷後之信讒斥賢耳，非固譏原也。”(15·a)라고 내세웠다.

17) 채미화, 『고려문학 미의식 연구』, 박이정, 1995, p.177.

그는 몇 차례의 파직을 통하여 비교적 농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러한 생활체험이 작품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帶雨鋤禾伏畝中 形容憔悴豈人容
王孫公子休輕侮 富貴豪奢出自儂

新穀青青猶在畝 縣胥官吏已徵租
力耕富國關吾輩 何苦相侵剝及膚
(「代農夫吟 二首」, 『後集』 권1<3·a>)

위의 시는 화자가 농부를 대신하여 그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 농부를 대변하기 위하여, 피지배계층인 농부와 지배계층인 왕손·公子나 관리를 대조적인 인물로 설정하여 현실의 모습을 선명하게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부는 사람의 모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묘사되었고, 왕손 공자들은 농부를 멸시하고 자신들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고, 관리들은 곡식이 아직 여물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세를 거두기 위해 농부들의 살을 배 갈 정도로 괴롭히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그의 농부에 대한 인식은 농부가 부국의 원천이고 지배층을 보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농민의 자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그의 자각은 비록 적극적인 저항이 결여된 농민을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그의 현실 인식이 이러한 농민의 자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라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¹⁸⁾ 따라서 그는 농부의 존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수탈을 일삼던 지방 아전들의 왜곡된 통치 행태를 준엄하게 고발하였다.¹⁹⁾ 특히 주제의 구현은 착취하는 관리와 피패한 농민이라는 대조적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었다.

이규보가 지은 장편의 시에서 농민에 대한 애정이 더욱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는 「望南家吟」이란 시에서,

18) 김시업, 「이규보의 현실인식과 농민시」, 『대동문화연구』 1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8, p.72.

19) 「七月三日聞雲梯縣爲大水所漂」(『奎集』 권12) 시를 보면, 이규보는 운제원의 백성들이 홍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반면, 평소 백성의 고통로 살을 찌웠던 교활한 아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南家富東家貧	南家歌舞東家哭
歌舞何最樂	賓客盈堂酒萬斛
哭聲何最悲	寒廚七日無烟綠
東家之子望南家	大嚼一聲如裂行
君不見石將軍日擁紅粧醉金谷	不若首山餓夫清名千古獨

(「望南家吟」, 『全集』 권1<18·b~19·a>)

라 하였다. 이 시의 전반부는 철저하게 대조의 수법으로 전개되었다. 南家-富-歌舞-最樂-酒萬斛, 東家-哭-最悲-寒-無烟綠 등의 세부가 이항 대립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부자로 전형화된 南家の 생활과 빈자로 전형화된 東家の 절박한 생활을 대조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부자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고, 술을 가득 차려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최대의 즐거움을 맛보는 집단으로 서술하였다.²⁰⁾ 반면에 빈자는 울음이 나올 정도의 가난에 찌들려 있고, 냉랭한 부엌에는 오랫동안 연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최대의 슬픔을 맛보는 집단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표현에는 깊이 있는 운치라든가 세련된 기교의 흔적은 없을지 몰라도, 사회 현상의 심각한 단층을 전형화시킨 날카로운 작가의 시각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것이다.²¹⁾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고사를 인용하여 전반부에서 대조된 의미와 연계시키고 있다. 즉 석장군은 진나라 갑부였던 石崇이고, 수양산의 아부는 주나라 무왕이 주를 치는 것에 반대하여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충신의 절개를 지킨 伯夷와 叔齊를 지칭한 것이다. 석숭은 생전에 호사한 생활을 하였음에도 후세에 이름을 드날리지 못했고, 백이와 숙제는 가난하면서도 청명을 떨친 것을 대조시켰다. 고사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빈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결한 삶의 태도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用事は 전반부에서 다룬 부자의 사치함과 빈자의 비참함을 대조적으로 심화시켜, 주제를 초점화하는 데에 효과적인 창작 수법으로 쓰였다.

이처럼 이규보의 현실 비판 의식은 농민을 소재로 한 다수의 농민시에서

20) 「八月五日聞群盜漸熾」(『全集』 권6)의 시에서는 도적떼가 창궐하는 때에도 국가가 불안한 것은 도외시한 채 날마다 술을 마시고, 가문의 융성함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선비들을 묘사하였다.

21) 김시업, 앞의 논문, p.66.

더욱 첨예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자와 빈자의 대조적인 삶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가난한 백성들의 참상이 심각했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용사나 대조의 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의도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품은 당시의 전형적인 농촌 현실을 선택하여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경험 중심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규보가 작품에서 추구한 비판 의식은 직접 현실의 체험에서 구축된 것으로, '風雅'의 전통을 계승하는 현실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는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 외면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고독하게 싸워야 하는 치열한 창작 정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현실 비판적인 시에서 형상화된 정서나 인식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현실 체험의 단계마다 쌓인 정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독특한 이규보의 창작 개성을 드러낸 것이다.²²⁾

3. 정치 세계에 대한 寓意

1) 우의의 이론적 성격

寓意(allegory)는 이규보 시의 제목이나 작품의 일부에서 자주 사용된 용어이다.²³⁾ 그러면 우선 이규보가 우의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有高英秀者, 讖之曰 '是, 破船詩也.' 予意以爲, 凡詩有言物之體者, 有不言其體而直言其用者. 山甫之寓意, 殆必以漢爲之船, 而直言其用曰 '半沒·平沈' 也. 若其時山甫而言曰 '子以吾詩爲破船詩, 然也. 予以漢擬之船而言之也.'

22)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규보 시문의 특색을 운운둔후한 성정을 기르고 유교적 덕목을 발현하는 것으로 본 견해(신용호, 『李奎報의 意識世界와 文學論 研究』, 국학자료원, 1990, p.170)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23) 『偶見氣稊因寓意』, 『後集』 권6(1·a).

『孫翰長復和次韻寄之』, 『全集』 권13(9·a) “一篇一句皆寓意, 詩之六義於此備.”

而善乎! 子之能知也.’ 則爲英秀者, 其何辭以答之耶? (『李山甫詩議』, 『後集』 권11<13·a~b>)

인용된 자료를 보면, ‘寓意’에 대한 이규보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읽은 『西清詩話』에 고영수는 이산보가 지은 「覽漢史」 시의 경련인 “王莽弄來曾半沒, 曹公將去便平沈.”을 기롱하여 난파 직전의 배를 직술한 破船詩로 해석한 기록이 있다.²⁴⁾ 이규보는 앞 시대의 고사를 채용하여 당대에 이루어진 변화의 의미를 반영하는 ‘讖’²⁵⁾의 문체를 통해 고영수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한 것이다. 그 비판의 근거로 시의 일반론과 이산보의 假空的 견해를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일반론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시에는 物의 ‘體’를 말한 것과 物의 體를 말하지 않고 곧바로 그 ‘用’을 말한 것이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의 體는 시적 대상 그 자체를 뜻하고, 용은 원 대상을 감추고 그것을 치환시킨 다른 사물을 뜻한다. 작가의 의도는 비유된 物[用]에 있지 않고, 비유에 의해서 감추어진 의미[體]를 유추해야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이산보의 시는 體를 곧바로 말하지 않고 용을 말한 것으로 보았다. ‘漢’은 體이고, ‘船’은 용이다. 시의 표면적 의미는 배의 침몰이지만, 심층적 의미는 漢나라의 멸망이다. 따라서 그가 산보의 시를 ‘寓意’라 한 것은 본래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양식적 특성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에 고영수는 위의 시를 난파 직전에 있는 배를 곧바로 읊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半沒’과 ‘平沈’의 시어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體는 船이고, 반몰과 평침은 배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다. 이것은 고영수의 기롱에 의한 해석으로 그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고영수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은 하나의 假空的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즉 고영수와 이산보의 동시적 대화를 상정한 뒤, 이산보가 스스로 시의 간접적 성격을 말하고, 고영수에 대해서는 조롱의 어조로 칭찬하였을 것이

24)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宋의 尤袤가 지은 『全唐詩話』 권5·『李山甫』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國初高英秀者, 與贊寧爲詩友, 嚮捷滑稽. 嘗譏古人詩病云; ‘山甫覽漢史「王莽弄來曾半破, 曹公將去便平沈」, 是破船詩.”(何文煥 輯, 『歷代詩話』 上, 북경 중화서국, 1997, p.227.)

25) 劉勰, 『文心雕龍』·『議對』 “採放資於前代, 觀通變於當今.”

라고 추단하였다. 이규보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자기 관점의 타당성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개 寓意로 사용된 각 언어 표현은 추상적 의미를 함축하며, 각 언어 표현과 추상적 의미는 일대일의 평행적 의미 관계를 갖는다.²⁶⁾ 마찬가지로 위의 「이산보시의」에서 다른 배의 침몰과 漢나라의 멸망은 평행적 의미 관계를 가진 우의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규보가 말한 寓意는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함축적 의미를 표현하는 창작 방법임을 알 수 있다.²⁷⁾

2) 간접적인 정치 비판

여기서 '간접적'이라 함은 화자의 인식을 표현하되, 시적 장치로써 비유의 대상을 설정하는 양식적 특징을 지칭한 것이다. 그러면 우의에 의한 작품을 통하여 그가 표현하고자 한 내용의 의미를 검토하기로 한다.

手鐮剪榛穠	地面淨如洗
煌煌攬奇姿	膏泥自封植
畫架仍撐搯	綉英媚香艷
紺葉添華滋	初雖託天力
半亦儻吾私	……
萬物託深意	靜坐復深思
若此非獨花	凡物亦如之
……	……
欲求后妃賢	無使寵嬖隨
欲擇人材秀	先去龍邪欺
此詩有深味	真教兒童知

(「四月十一日與客行園中~」, 『全集』 권5<20·b~21·a>)

위의 시는 '장미'를 소재로 한 것이다. 그는 장미의 본질이나 표상을 표현

26) C.Carter Cowell 저/이재호·이명섭 역, 『문학개론』, 을유문화사, 1991. p.93.

27) 이처럼 이규보는 寓意에 대한 이론적 논리를 전개하였고, 그에 따른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는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우홍과 우의를 대조개념으로 설정한 뒤 이를 토대로 용사와 신의의 대립적인 창작 방법으로 확대한 논의(조동일, 「13세기 詩論에서 문제된 心과 物」,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 양상』, 한샘, 1992)는 재고를 요한다.

하는 대신에 장미를 가꾸는 행위를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 비유하였다. 동산의 수풀 사이에 있던 장미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로소 장미가 잘 자라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북돋아 주며, 시령을 매어 준 것은 직접적인 행위이다. 이를 통하여 장미가 잘 자란 것은 장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만, 자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 근본을 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도출하였다.

그는 시의 제목에서도 밝혀 놓았듯이²⁸⁾ 장미 가꾸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모든 사물에 귀납시켜 일반화하였다. 즉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후비를 구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현명한 후비가 없는 것은 총폐 때문이고, 뛰어난 인재가 없는 것도 간사한 신하가 주변에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작품에서 평행적 관계로 나타나는 잡초·총폐·참신 등은 하나의 동류 개념이고, 장미·후비·인재 등도 또 다른 동류 개념이다. 두 가지 부류의 개념 관계는 비교의 유사성에서 결합되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이는 하나의 사물에 의탁하여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寓意의 수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가 총폐와 참신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작품에 나타난 우의는 권력자 주변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적 비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그가 말한 ‘깊은 의미[深昧]’이다.

官督家丁無老稚	瘴嶺千軍眩手收
玉京萬里賴肩致	此是蒼生膏與肉
穢割滿人方得至	一篇一句皆寓意
.....
知君異日到諫垣	記我詩中微有旨
焚山燎野禁稅茶	唱作南民息肩始

(「孫翰長復和次韻寄之」, 『全集』 권13<9·a>)

위의 시는 ‘孺茶’를 소재로 한 것이다. 이규보는 동료인 孫得之와 함께 옛날 진양에서 차 마시며 교류하던 때를 생각하고, 차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생각을 드러내었다. 그는 관에서 징발된 노약자와 어린아이까지 험한 산중의 차잎을 따 모아서 머나먼 서울까지 등짐을 져서 운송한 사실을 주목한

28) 「四月十一日與客行園中~於是因物有感作長短句以示全履之」, 『全集』 권5(20·b).

뒤, 관리들이 마시는 차가 백성의 수많은 피땀에서 유래한 것임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그는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차 마시기를 중지하였다.²⁹⁾ 대개 차의 출자와 운송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음에 비해, 이규보가 차를 통해 백성의 심각한 고통에 대한 이치를 발견한 것은 사물에 대한 그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 평행적 관계로 나타나는 산중·백성·고통 등은 하나의 동류 개념이고, 궁궐·관리·즐김 등도 또 다른 동류 개념이다. 두 가지 부류의 개념 관계는 대조의 차이성에서 결합되었다. 이규보가 작품에서 관리의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유래를 통해 차의 공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속의 우의는, 백성이 겪는 힘든 고통을 모르고 환락을 즐기는 관리들에 대한 간접적 비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위의 시가 ‘장미’, ‘차’ 등의 함축적 비유를 활용하여 우의를 표현한 것이 라면, 다음의 시는 ‘말[馬]’의 상징적 형상화를 통해 우의적 의미를 표현한 예이다.

.....

今看此二馬
一馬飛去可以朝燕莽秣越
翠衫輕帶紫髯翁
跨塵奔逸電滅沒
一馬局促自効駑下駒
逐日霜蹄何處展
布袍童子牽且去
畫工畫此豈無謂
不唯賤畜乃尚爾
用之騰躍九天衢
是亦逢時與否耳
下車剪拂會有人

.....

同是叫與螭
夸父尙杖應難追
銀鞍赫赫黃金羈
王良造父徒爾爲
俯首低徊莫縱馳
追風逸氣無由施
傍睽碧草行何遲
中有妙意人誰知
男兒窮達一如斯
不用或自沈泥途
若子者分甘伏櫪無長吁
時哉未來命矣夫

(「閣上侍令賦雙馬圖」, 『奎集』 권9<1·a~b>)

위 시는 말[馬]을 중심 제재로 하였는데, 이규보가 閔湜(?~1201)의 집에 있는 ‘쌍마도’의 그림을 보고, 거기서 느낀 정감을 형상화한 것이다. 작품의

29) 「孫翰長復和次韻寄之」, 『奎集』 권13(9·a) “酒酣謀睡業已甘, 安用煎茶空費水?”

전반부는 쌍마도에서 느낀 내용이고, 후반부는 이를 통해 당대의 현실과 연계시킨 내용이다. '쌍마도' 속의 두 마리의 말은 개인적 상징을 나타내는 자연 사물로 대조적 의미를 독특하게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말은 날아오르는 모습이고, 또 다른 말은 끌려가는 모습이다.

이 대조적인 모습의 두 말을 통하여 작가는 구체적 모습을 연상한다. 하나의 말은 광대한 우주적 공간을 마음대로 날 수 있지만, 다른 말은 쭈그리고 머리를 숙여 배회하며 달릴 수가 없다. 달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에도 갈 수 없고, 기개를 펼 곳도 있을 수 없다. 그럼 속에 평범하게 묘사된 두 말의 모습을 자유분방한 말과 얽매인 말의 대조적 상징으로 해석한 것은 작가의 독특한 사유의 결과이다. 이것은, 그가 '화공이 이 그림 뜻 없이 그렸을까', '이 속에 있는 묘한 뜻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한 것에서, 쌍마도에 숨겨진 의미에 대한 해석이 자신의 독특한 사유의 결과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전반부의 대조적 의미는 후반부의 대조적 의미와 유사한 관계를 이룬다. 즉 대조적인 말의 모습을 사나이의 궁달과 관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 상징의 수법에 해당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든가 짐작할 수 있는 뜻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³⁰⁾ 말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말은 사나이의 영화를, 메인 말은 사나이의 곤궁을 뜻하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인생의 궁달이 때를 만나고 못만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데, 때를 만나지 못하면 버려져 진흙 속에 묻히게 되고, 때를 만나면 쓰이어 이름을 떨칠 수 있다는 추상적 관념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 관념을 도출하면서 用事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轅下駒는 사람이 구박되어 자유롭지 못함을 상징하고, 伏櫪은 사람이 숨어 사는 것을 뜻한다. 작가는 자신의 처지를 원하구와 복력에 비유하여 때를 만나지 못하여 미천한 존재로 남아 있음을 부각시켰다.

위의 시는 '운명론'적 관점 대신에 현실비판적인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삶의 행복과 불행이 때를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과 현실의 관계 양상이다. 그는 자주 세상

30)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3, p.131.

과 어긋나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을 무엇보다 당시 인재 등용이나 업적 평가의 불합리성에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의 작품이 당시의 제상이었던 閑上侍의 명령에 의해 지어진 것을 감안하면, 모순을 유발한 주체들을 표면에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 모순의 심각성과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상징적 수법이나 用事의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이규보는 寓意의 수법으로 자신의 비판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가 우의적으로 비판하고자 한 것은 권력자 주변에서 통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총폐나 참신들이었고, 백성이 겪는 힘든 고통을 모르고 단지 환락에 도취되어 있는 관리들이었으며, 부당한 인재 등용을 자행한 통치 행태 등이었다. 이처럼 이규보는 부당한 정치에 대하여 용사나 대조와 비교의 수법을 활용하여 寓意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작품의 예술성을 성취할 수 있었다.

IV. 결 론

李奎報가 현실에서 경험한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형상화한 것은 그의 문학세계의 주요한 특징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적 성격을 그가 내세운 풍자와 우의라는 문학이론적 차원에서 상관지어 밝히면서, 용사나 우의가 작가의 창작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한 창작방법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규보는 작시의 근거를 『詩經』의 風雅 정신에 두고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현실의 모순에 대한 시를 正風이라 하여 관료 사회의 모순이나 인간의 비양심적 행위에 대하여 풍자하는 시를 창작하려 하였다. 이러한 창작 태도는 그의 독창적 개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가 의도한 諷刺는 사람들의 사회 관계에 대한 미적 표현으로서 참다운 인격과 양심적인 사회를 회복하는 데 있었다.

특히 그가 풍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이었고, 그의

비판 의식은 농민을 소재로 한 농민사에서 더욱 첨예화되었다. 당시 사회의 기반이었던 농민의 궁핍한 삶을 동정하고, 그들에게서 수탈을 일삼던 지방 관리를 준엄하게 고발하였고,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였다. 특히 부자와 빈자의 대조적인 삶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가난한 백성들의 참상이 심각했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창작 의식은 용사나 대조의 수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구현되었다.

또한 이규보가 작품 창작에서 거둔 예술적 성취는 寓意의 수법에 의한 형상화에서 구현되었다. 우의에서 비유된 사물은 정치 세계의 부정적인 모습 이었고, 그는 우의로써 자신의 비판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그가 우의적으로 비판한 것은 권력자 주변에서 통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총패나 참신들이었고, 백성이 겪는 힘든 고통을 모르고 단지 환락에 도취되어 있는 관리들이었으며, 부당한 인재 동용을 자행한 통치 행태 등이었다. 이처럼 부당한 정치에 대하여 용사나 대조와 비교의 창작 방법을 원용하여 우의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미적 경지를 성취할 수 있었다.

Abstract

A Study on Satire and Allegory in Kyu-Bo Lee's Literary World

Ha Kang-Jin

One of Kyu-bo Lee(李奎報)'s majo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s his reshaping what he experienced in his real life. This paper explores his satire with respect to literature theories and contends that satire is a convincing way to show his originality in writing.

Kyubo Lee wrote on the basis of 'Pung-a'(風雅) spirit in 「Sikyung」(詩經). He especially tried to write poems that satirize people's unconscientious actions or contradiction in bureaucratic society, arguing that poems contradictory to real life was 'chungpung'. His satire expressed people's relationships in society and was to recover truthful personality and honest society.

Especially, what Lee satirized was actualities, and his criticism was embodied in his poems about farmers. Hence he sympathized with farmers' needy lives and criticized corrupt government officers and unfair actualities. In addition, he showed the misery of poor people by comparing two different groups of people, the poor and the rich.

Lee's artistic achievements in his works were realized through his allegory. Satirized things referred to negative aspects of politics, and Lee effectively expressed his criticism by means of satire. He satirized government and its officers who sought only for pleasure without realizing pains by common people. Lee achieved his great success by means of allegorical expression.